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95호 HYUNBULNEWS.COM 2026년 9월 23일(음력 8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태고종 총무원장 연임 가능해졌다

9월 16일 태고종 157차 임시종회
지난해 부결 안건…15년 만 변화
격론 끝 표결…찬성 42표로 가결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장 임기가 현행 4년 단임제에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변경됐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는 9월 16일 열린 제157차 임시종회에서 총무원장 임기 연임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2011년 총무원장 단임제가 도입된 후 15년 만의 변화다.

연임제 개정안은 지난해 한 차례 부결된 데 이어 올해 재추진 과정에서 찬반 논란과 반대 움직임이 이어졌던 사안이어서 향후 종단 운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이날 임시회는 60명 중 58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첫 번째 안건인 종헌·종법 일부개정(안) 중 '총무원장 임기규정 개정(안)'은 투표에서 찬성 42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이 제안한 '총무원장 임기규정 개정(안)'은 현행 4년 단임제를 1회 재선거에 의한 연임제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법규위원회와 중앙종회의 장단 협의로 부칙 중 '이 법은 시행과 동시에 적용한다'라는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륜 스님은 "종책사업의 연속성과 대외·대관 업무 협조의 지속성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연임제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대혜 스님은 "4년 단임으로는 종단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에 시간이 짧을 수 있다"며 종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연임에 따른 장기 집권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밝혔다. 연임 여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닌 만큼 종회의 판단을 거쳐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제도 등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청공 스님은 종도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해당 안건을 보류하거나 보완 또는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원일 스님은 "연임제 논의는 2년 전부터 추진돼 왔고 그동안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를 거쳐 상정된 것"이라며 최근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호 스님도 "8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라며 과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헌 개정이 논의돼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이 현 총무원장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누구 한 사람을 위해 종헌·종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토론 과정에서 특정 사찰 및 개인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발언 수위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논의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으로 마무리됐다.

찬반 의견을 나눈 중앙종회는 격론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찬성 42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종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다른 안건인 '종무원장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선거관리위원장 상설화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와 함께 법규위원에 자관·지우 스님, 호법위원에 도허 스님을 임명하기로 했다.

앞서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은 개회사에서 "종헌과 종법 개정은 종단의 미래와 제도의 안정성, 종도 전체의 뜻을 두루 살펴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모든 일에는 중앙종회를 비롯한 종단 각 기관과 전국 종도들의 관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총무원이 추진하는 종책과 주요 사업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1만 동국인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는 9월 17일 교내 대운동장에서 '2026 Young Camp(영캠프): 주인공' 을 개최했다. 이날 동국대는 1만 명의 청년들이 동시에 수계를 받는 장관을 연출했다. 사진은 참가 내빈들과 참가 학생들의 기념촬영 모습. 〈관련기사 3면〉 글 · 사진=신중일 기자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10인 확정…초선 5명 '변화' 주목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9월 14일
제40차 운영위원회서 10인 선출
진상 · 은광 · 금해 · 주석 · 정관 · 혜능
법해 · 설해 · 수경 · 서원 스님 당선
10월 12일 직능대표선출위서 확정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9월 14일 서울 법룡사에서 제4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9대 중앙종회에서 4년간 활동할 비구니 종회의원 10인의 추천후보를 확정했다.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에서 4년간 활동할 비구니 종회의원 추천후보 10명이 확정됐다. 현역 의원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초선 후보 5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리면서 종회 활동에 변화가 예고됐다. 경험을 갖춘 현역 의원과 새로운 시선을 가진 초선 의원이 함께 활동하게 되면서 향후 비구니 승가의 현안과 참종권 확대 논의에도 관심이 모인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9월 14일 서울 법룡사 전국비구니회관에서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제4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5개 분야에 출마한 16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최종 10명을 선출했다.

교학·수행분야에는 진상 스님과 은광 스님, 포교분야에는 금해 스님과 주석 스님, 복지분야에는 정관 스님과 혜능 스님, 행정분야에는 법해 스님과 설해 스님, 사회·문화분야에는 수경 스님과 서원 스님이 선출됐다. 이날 선출된 10명의 후보자는 10월 12일 열리는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날 회의는 선거인단 96명 중 91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선출위원회가 사전 배포한 입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토대로 16명 입후보자의 정견발표가 진행됐으며 이후 투표를 통해 5개 분야별 2명씩 선출했다.

선거 결과 교학·수행 분야에는 진상 스님과 은광 스님이 각각 66표, 68표를 얻어 선출됐다. 철우 스님은 50표를 얻었다. 포교분야에는 금해 스님과 주석 스님이 각각 57표, 81표를 얻었다. 정운 스님은 46표에 그쳤다. 복지분야에서는 정관 스님이 66표, 혜능 스님이 68표를 확보해 선출됐다. 지인 스님은 49표에 머물렀다. 행정분야에서는 법해 스님 79표, 설해 스님이 46표를 얻었다. 우하 스님은 25표, 보경 스님은 34표에 그쳤다. 사회·문화분야에는 수경 스님과 서원 스님이 선출됐다. 각각 79표와 61표를 얻었다. 지인 스님은 44표를 얻었다.

이번 선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10명의 추천후보 가운데 초선 의원이 5명이라는 점이다.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자리를 지킨 가운데 새로운 얼굴이 절반을 차지하면서 경험과 새로운 시선이 함께 중앙종회에 들어서게 됐다. 수행과 포교를 비롯해 복지·사회문화 등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진 만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종회에 전달하는 것도 새로운 의원들의 과제다. 비구니 참종권 확대와 종단 내 역할 강화로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를 모은다.

선출위원장인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선거 당락에 상관없이 결과에 승복하고 맡은 바 자리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사회를 행복하게 하고 아픔을 보듬으며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추석 연휴로 9월 30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38 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법회

공의 公議
공감 共感
공심 公心

■ 불기2570(2026)년 10월 1일(목) 오후 2시
■ 조계사 특설무대 ■ 참석문의 : 총무원 총무부 02-2011-1706